

唯物이나 唯心이나?

韓稚振

一. 頭 言

우리는 무엇에든지 너무 躁急해 하고 氣分的 狀態에 싸여가지고 막우 셔 드러서는 안이된다. 世上萬事 中에 A B C란 直線을 經過하려면 A에서 C에 공동 썬여서가 분작이 成立되는 일은 업다. 不可不 A에서 B를 거쳐 C에 이르기까지의 時間的 進行과 指針에 잇서야 되는 法이다. 이럼으로 우리가 무슨 問題를 잡아 가지고 研究에도 條目條目이 그 問題의 自體에 드러가서 事實과 理論에 依하여 쓸코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저 空然히 엇더한 預的 利念과 先入見을 가지고 쏘는 周圍 環境의 臨時的 刺戟에 放從하여 무엇을 議論한다 하면 거기에는 曲解와 空論 쏘는 科學의 祖上이라는 「세콘」의 偶像 (偏見)들이 得勢하고 眞理란 것은 五里霧中에 숨고 만다. 우리가 할 수 잇는 대로 이러한 研究의 條件을 생각하면서 從來 一般思想界의 兩大 對峙的 骨子を 이루어 노흔 本文表題 즉 唯物이나? 唯心이나? 하는 根本問題를 簡略하게나마 그러나 좀 根底 잇게 얼마간 생각하여 보려한다.

× × ×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問題가 만다. 爲先 먹고 입어야 하는 衣食住도 問題가 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 衣食住를 需用하려는 사람, 그 自體로부터 問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잇슨 다음에 밥 문제, 옷 문제가 生起한 하함이다. 이 關係를 一例로 說明하면 如不할 것이다.

假令 내가 엇던면 旅行을 한다 하자, 내가 그 旅行을 갈나니까 以前에 생각지도 안른 旅費 問題며, 衣服裝滿이며, 其他 行裝들을 念慮하게된다. 卽 旅行할나는 活動에 依하여 이 모든 物質에 對한 問題 즉 旅費行裝 問題가 現出하였다. 이럼으로 萬若이 意識的 旅行이라는 活動이 當初에 업서스면 여기서 問題가 된 그 모든 物質들의 存在도 잇슬 수 업고 썬라서 그것들에 對하여 議論할 根據도 업는 것이다. 이 一例는 簡單하게나마 物質과 意識的 活

動과의 關係를 率直히 指示함에 不過하지마는 그러나 世人 中에는 이러듯 알기 쉬운 것을 무슨 豫定的한 偏心으로써 曲解하기 때문에 그 曲解의 迷路에 혼이 彷徨하고 있는 唯物論者들의 立地를 한번 檢討하여 볼 必要가 있다. 이러케 하기 前까지는 그들의 混沌된 裏面을 理解치 못할 境遇이다.

우리는 아래에 먼저 唯物論의 根底를 公正하게 簡單히 簡明하고 그것들에 對하여 批判的 說明을 좀 加할가 한다. 그리고 나서는 全 唯物論의 根底를 들쳐 보면서 唯物과 唯心 간의 論爭에 對한 最後的 決判을 試驗하여 보겠다. 이만한 큰 問題를 이차른 原稿에 다 圓滿히 실을 수 업슬 것은 누구나 斟酌할 뜻하다. 單只이 問題의 要領만 抄라서 이야기 하겠다.

二. 唯物論의 辯論

누구나 過去 思想史를 읽어 보면 다 알겠지만은 人類의 思想作用의 發達의 始作은 自我에서 出發하지 안코 外界에서 出發한 것 갓티 보이는 矛盾을 보게된다. 아까 例한 旅行者가 旅行이라는 其活動 自體에 對하여 먼저 念慮하게 됨보다 그 活動에 需用될 旅費, 旅衣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갓튼 것이 異相하다. 어린, 아해가 自我를 意識치 못하면서 母를 먼저 意識하여 自己의 問園에 在한 燈火이며, 自己의 手足 등을 보고 귀여뜻게 되는 것도 一種 矛盾일 것이다. 이러케 造園物을 無意識的으로 귀여뜻다가 漸次 外界와 (나)라는 分別, 즉 意味를 붓치게 된다. 이럼으로 外界의 存在와 그것의 意味를 認定하기까지는 얼마라는 時期를 지난 다음이 아니면 그 存在의 與否를 알 수 업다.

勿論 우리는 여기에 잇서 反問하기를 비록 그 아해가 外界의 物質을 意識지 안어도 그 物質들은 嚴然히 存在 하야잇고 그 아해의 意識은 그후에 그 外界的 刺戟에 依하여 出現치 안이하었느냐 할 수 잇겠지만은 그러나 이 反問은 그 아해가 안이었던 第三者가 代論하는 것이요, 그 아해의 自體로써의 論은 안이다. 이럼으로 그 結局은 그 아해 자신의 입지로써는 그의 意識이 잇섯기 때문에 그 外界의 存在가 認定된 것이다. 적어도 認識을 卍난 存在는 업다. 이럼으로 認識 업서도 萬事가 絕對로 存在한다는 것은 엇던 第三者의 獨斷的 妄言이 되고 만다.

이럼으로 혼이 唯物論과 唯心論 間에 論爭이 되는 것인즉 物質이 먼저 되얏느냐, 意識的 心志가 먼저 되었느냐 하는 것은 舉論할 必要도 업다 한다. 何故요? 우리가 이러한 問題를 말하는 것 부터가 즉 特히 唯物論자 싸위가 意識의 存在 及 其動偉力을 否認하는 言論까지가 意識의 存在와 偉力을 預想 했슬뿐이다. 그러한 論法도 우리의 精神과 意志가 하는 것이요. 아모것도

意識 못하는 木塊나 石塊들이 이붓을 들고 이러니 저러니 하여 原稿를 채와 놓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物質的 原子들의 互相衝突노 된 作品은 안일 것이다. 이럼으로 唯物論者나 唯心論者나 또 누구나 莫論하고 各各 自己의 精神을 確信하고, 그 다음에 唯物의 是非를 말하고 唯心の 如何를 主張하는 것이다. 이는 더 疑訝할 수 업는 共通的 事實이다. 그런즉 오즉 問題되는 것은 우리가 다 意識하는 이 宇宙萬相의 構成分子는 무엇일가? 唯物일가. 唯心일가. 하는 것이 一大 問題가 되었다. 즉 이러한 問題는 다 意識的 問題다. 勿論 이 兩 種 問題, 唯物이나 唯心이나가 다 意識的 問題가 된 以上 唯物論 特히 사람의 意識을 無價値 또는 無効力하게 보는 類의 唯物主義는 벌서 한 목 꺾기고 드러 가지만은 그러타고 唯物論者의 理論을 담박無妨하게 効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람이었던 一個 物體를 認識하기 前에도 그 物體가 嚴肅하게 存在하였겠다고 알고 主張 하였는 論法도 奇怪한이 만콰 여러 가지 唯物主義的 理論이 만히 流行케 되었다. 이제 그 重要的 것만 紹介하면 三 種에서 不過하겠다.

一. 一元的 唯物論이니 古代 希臘에 잇서 「텔니쓰」 [탈레스] 가 萬有의 根本은 水라 한 것과 「앤넥시만더」 [아낙시만더] 는 氣가 宇宙의 本體다. 또 누구는 火, 或은 土다한 것 갖튼 理論은 다 一元的 唯物主義 즉 唯物質 外에 아모것도 또 업다고 主張함에서 一致하였다. 所謂 精神이란 것은 이 一元的 즉 同性的 物質의 一種 變態 作用에서 不過하다 하였다. 勿論이 一元的 物質論은 이 宇宙의 各種各樣的인 것을 說明하기에는 너무 困難한 까닭에 즉 例하면 火란 一元的 物質이 엇더케 變하야 水가 되며, 그 水가 變하야 또 土가 되는지 적어도 未開한 古代人에게는 알 길이 漠然하였섯다. 그런 까닭에 그 一元的 唯物論은 提唱者 以外人에게는 別로 미더주는 이도 업고 또한 提唱者 스스로가 疑心한 것도 事實이다. 이럼으로 다음에 말할냐고 하는 多元的 唯物論이 生起하였다.

二. 多元的 唯物論은 흔히 原子論이라고 하는데 元來 古代 希臘에서 發生하였다. 그제에 잇서 이 學說을 唱作한 「데마크리터쓰」 [데모크리토스] 와 「류기퍼쓰」 에의하면 이 宇宙萬有는 火, 水, 氣, 土, 門者의 分析 綜合으로 되었다 하면 「앤넥사고와쓰」 [아낙사고라스] 는 現代科學者들 貌樣으로 無數한 原子로 되엿다 하여스니假令 石은 石의 原子로 되고, 木은 木의 原子로, 火는 火의 原子, 이러케 萬物 各種이 各各의 原子가 잇서 되었다 하였다. 東洋 儒敎書類에 屬한 周易에 실여 잇는 陰陽設 갖튼 것도 이 多元的 唯物論에 屬하였다 할 것이다.

三. 現代에 自己 外에 더 別異한 學說이 업다고 썬드러대는 唯物論은 科

學的, 唯物的(自然主義)이니 그것에 의하면 物質이라는 것은 以前 古代學者의 말과 갓티 무슨 個體的 쏘는 感觸할 수 있는 存在가 안이라 純全이 力 혹은 雲氣가 物質의 原性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所謂 電子니 「푸로탄」이니 하는 存在體들은 다 力의 뜻이 우리가 成視할 수 있는 物體는 아니다. 이럼으로 古昔의 物質論과 今日의 唯物論者와의 變에는 그 說明 上天塊에 差가 있다. 비록 力과 그 運動이 萬有의 根據라 하는 點은 以前 原始人의 唯物主義와 同一하다 하겠지만은

現代 唯物論의 發達は 말할 것도 업서 現代 自然科學이 發展으로 始作되야 가지고 그것이 哲學界와 社會學界에 入하야 一般 人生觀에 莫大한 影響을 주었다. 이 現代的, 唯物論的, 人生觀의 功勞者가들은 十七世紀에 잇서 英國에는 「합쓰」 [홉스] 요. 一八世紀에 本國에 잇서서는 「라멧추릿」及 「홀박」이요. 十九世紀에는 獨逸에 「말니쑤트」 「복트」及 「헉켈」 「헤겔」이였다.

그런데 現代 二十世紀에 잇서서의 唯物論者들은 그 數조차도 적지만은 그들의 論意도 거의 唯心論者의 理論과 接近하는 點이 만타하기 썰문에 唯物이란 意味는 只今에 와서 만히 變하여 있다 할 것이다. 一例하면 現科學의 唯物論의 先驅者라 할 獨逸의 「헉켈」은 主張하되 宇宙의 根本은 創始的 物質Original Substance이라 하였고, 그것은 經驗, 感覺, 意志 等の 心的 性實을 「賦與」되야 잇는 物質이라 하였다. 이 는唯心論者가 宇宙의 原質()의 分配 作用으로 되였다 하고, 그 力과 物質은 所謂 「不可知」의 作用으로 形模 즉 象徴 Symbol이라 하였스니 이 「不可知」物도 亦是 唯心論者의 精神의 實在와 다름이 업다. 그러나 唯心論는 그러케 「不可知」라는 唯物論者의 結論을 짓지는 안이한다.

近代에 社會主義學說者들은 「맑스」學說 中 唯物史觀을 誤解(특히 朝鮮에 社會主義의 初學者들에 잇서서 더 심하다)하여 가지고 現代科學的 唯物論을 「맑스」社會主義學說의 根據 갓티 말하나 그것은 온통 無根의 所說들이다. 「맑스」가 自己의 學說의 根地들 絶對的 唯心論者 「헤겔」의 辨證法에서어든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맑스」는 「헤겔」과 갓티 人類歷史는 一個 觀念의 發展進行으로 보았다. 이 史的 發進의 法則은 思考 作用이 두 矛盾된 思想이 對立할 적에 거기서 認定的 綜合 否定의 否定의 思想이 出하고 쏘여기서 始作하야 前進行法을 되푸리하는 가운데 不絶히 下級에서 高級에 達하는 것과 갓티 社會發展도 그와 갓티 正과 反의 對峙들에 通하야 나아간다 하였다.

이럼으로 맑스는 말하되 모든 人類社會의 發展은 兩對立안 階級의 鬪爭으

로 되었다 하얏스니 곳 人類歷史는 鬪爭史로 본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兩對立 階級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업시 푸로레타리아 와 「쏟조아」 일 것이다.

그리고 이 鬪爭의 根據 즉 社會成立의 原因과 根據 物質的 條件이라 한데서 그는 唯物史觀의 立地를 어뎠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맑쓰의 社會主義를 다 說明하려고 하지는 안커니와 如何問 그 所謂 對立的 兩 階級이 鬪爭하며 나아가는 것이 人類의 歷史라 할진대 人類 歷史의 根地 는鬪爭 즉 活動이 分明하다. 그리고 兩 階級이 對立하여 生存을 닷툰다 하얏스니 이 點에 잇서 「맑쓰」는 意識的, 動的 條件을 反認하는 主義者가 안이라 質로 意識的 活動主義(動的XXX)라 할 것이다. 비록 그이가 物質이 人의 意識을 支配한다고 하얏스나 그는 自己의 鬪爭的 歷史觀과 矛盾되는 主張이요. 不然이면 意識이 物質을 支配하는 事實을 瞬間忘却한 失手라 할 것이다. 하기 새문에 「맑쓰」를 純唯物論者즉 機械主義的인 人生觀論者라 하기 甚難하다.

唯物論은 無機體나 有機體나 할 것 업시 모두 物理的, 化學的 作用이요. 그 作用으로 分析歸納할 수 잇다 하고, 有生物과 無生物間의 差異는 오즉 構造上 生物은 無生物보다 좀 더 根雜하고 各樣的인 作用에 不過하다 하는 것은 以上에 暗示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唯物論에 有力한 理論 中에는 以下 五 個일 듯하다.

一. 生物을 說明함에 무슨 神秘的한 靈이니 魄이니 하는 怪物이 그 物의 內包에 居住하여 그 物의 一爭一動을 하게 한다하는 것은 原始的 野蠻人의 迷信한 바 그 싸위 靈魂은 現代科學으로써 說明할 수도 업고, 볼 수도 업다 하는 것이다. 또한 혼 갖튼 것을 붓쳐가지고 生物 其他를 神秘化, 迷信化 할 것도 업다 하며, 오즉 生命과 그 意識의 作用이라는 것은 다만 物理化學 作用의 結果에서 不過하다고 說明하는 것이 가장 科學的이요. 現代的이라 하는 것.

二. 唯物主義的 說明은 싸라서 分明하고 確信할 수 잇스나 그러치 못하면 五里霧中에 싸이여 分明치도 못하다 이와 갓티 分明을 爲主하는 科學的, 唯物論의 說明이 안이고는 生命과 그 意識 또 其他를 알 길이 업다. 이럼으로 唯物的 科學을 썬나서는 아모런 解釋도 업다 하는것.

三. 現代科學 中에 特히 生物學은 一般 生命의 呼吸, 消化, 血循環, 等を 機械的으로 說明하얏스니, 其他 모든 作用도 漸次다 機械的으로 說明할 수 잇다. 더구나 比較的 解剖學은 肉體 作用과 心理 作用이 同伴하는 것을 보이는 同時에 萬一 頭腦 어느 部分을 상케하면 그 傷處에 의하여 啞者 或은 □者가 되는 것을 指示하니 이러한 科學的 事實은 意識의 頭子의 產物인 것을 알 수 잇다 하는것.

四. 力과 物質 作用의 外에 싼 무엇을 輪 入하여 生物과 其他 精神 現狀을 說明하는 것은 力不減律의 破壞이니 이는 全 科學의 地盤을 否認하는 것 인즉 우리가 科學의 價値를 認定하는 以上 物質 力 不減 說을 否認하는 物質 外에 싼 무엇을 認定할 수 업다 하는것.

五. 宇宙的 觀察이니 宇宙는 本是 無生命인 瓦斯體로써 冷却하면서 回轉 하다가 모든 星辰이 되고, 其中 地球하나가 되었스며 또한 地球가 生起한 後 로도 얼마 後에 生命이란 것이 있게 되고, 또 其後 얼마가 잇슨 다음에 自然的 偶然즉 淘汰로 生命의 意識 갖튼 精神이 出現하였으니 이것만 보드래도 모든 精神的 現狀은 物質의 產物인 것을 알 수 잇다 하는 것. 이것이 簡略하 나마 物質主義의 學術的 有力한 理論들이라 하였다.

三, 유물론의 綻破

우리는 먼저 以上에 記한 唯物論의 理論을 다시 討究하여 보자.

첫재 唯物論者의 理由인 神秘대 科學的 說明에 就하여 우리는 어대까지 生命과 其他 精神 作用은 그리 神秘的하게 看做할 것도 업다 하는 것을 眞心으로 同議하는 바이다. 實로 科學 이 모든 神秘를 打破하는데 만흔 供獻을 할 것을 認定한다. 그러나 科學에게는 아조 神秘가 업다 하는 데에는 不可不 抗拒아니 할 수 업다. 비록 우리가 生命 或 意識의 作用은 有機體의 消化作用 呼吸 作用과 同一하다. 看破하드래도 여기에 큰 難關이 되는 것은 엇더케 이 모든 肉體的 作用이 秩序있게 分配하며, 꾸준히 新陳代謝를 하고 잇을 가 하는 것이 神秘라면 神秘가 될 것이요. 不可思議라면 不可思議라 할 것이다. 「엇더케」이것이 큰 問題다. 이럼으로 科學이 如此한 모든 法則的 運動을 根本的으로 說明하여 노키 前까지는 神秘 否認의 理由는 有效하지 못하다.

둘재 唯物論的 說明은 分明하고 確實한 싸답에 다른 種類의 說明은 미들 수 업다 하는 말은 理論부터 되지 아니 하나니 웨그러나 하면 說明 할냐는 事物을 說明치도 안코 說明한 것처럼 分明과 確實을 먼저 主張하는 것은 自家撞着이 된다. 즉 分明과 確實의 根據를 闡明하여야 할 것을 그러케 하지 안코 그저 像想만 하기 싸답이다. 一步를 退하여 비록 機械主義的 說이 가장 分明하고 確實하다 하드래도 그러타고 生物學도 物理化學的 方法을 그대로 探하여야한다는 것은 獨斷이다. 生命과 其外 精神的 作用을 싼 方法(分析만 말고 結合)으로 더 잘 說明할 수 잇다 하는 證據를 알지 못하였스니 自己의 偏狹을 露出함에 不過하다.

셋재 理由인 解剖學的 事實은 多少 間眞理를 가지기는 하였스나 그러나 그것은 亦是 部分的 眞理 맞게는 안된다 今日에 잇서서도 모든 生物의 作用

과 精神的 現狀을 機械적으로 說明하는 生物學者, 心理學者가 幾人이 잇지만은 그와 反對로 그러한 機械的 說明을 부인하고 一步를 進하여 生命을 비록 旣 方法으로써 說明은 안이한다 하드래도 그것을 아직 不可思議에 부쳐 두자는 生物學者, 心理學者의 數조가 東洋에서 잇서서는 모르지마는 現下 西洋에 이서서는 大多數라 할 것이다. 實相 말이지 참眞理를 爲하여 研究에 熱中하는 學者들은 機械主義的 說明의 不足을 宥기고 잇는 것이다. 무슨 偏見과 先入見을 主張하기 爲하여 自己의 固執을 獨斷으로 하는 機械主義者는 恒常 基 數조도 甚하 적지만은 學界에 잇서서는 別로 有力하다고도 認定치 안이한다.

한동안 唯物主義의 獨勢力을 도와 주엇든 所謂 大腦作用 蜀限說 Doctrinization of Cerebral Functions의 眞理 갖튼 것도 이미 否認된지가 오랏다. 다시 말하면 心理의 作用은 頭腦의 各 局部에 限하여 例하면 言語 局部 Speech Centre를 傷케 하면 그 言語作用을 할 수 업다 하는 主張은 의미實驗으로써 無效가 된 것이다. 이 實驗에 依하면 비록 頭腦의 어느 작용의 局部를 毀傷 혹은 切棄했다 하드래도 그 心的 作用은 그 肉의 局部가 永回生치 안트래도 홀로 他方面으로 回復이 되는 것을 차차 說明이 되엿다. 이것만 準하드래도 心理作用은 온통 肉의 腦子에 依하여서만 決定된다 하는 主張은 妄說에 不過하다.

넷째 力不減說에 對하여서는 이 理由가 도리혀 唯物主義自體의 破滅을 가져 오는 것이니 爲先 唯物論者의 有力한 提議인 意識은 物質의 產物이다」하는 棄面을 調査하여 보자. 物質은 意識과 그 他精神을 產出하엿다 하는 말은 物質이 物質안인 旣 무엇, 즉 精神을 產했다 하는뜻이니 여기서 우리는 物質 不減不增說의 破壞를 알 수 잇다. 웨그러나 하면精神이란 旣 現狀이 增加하엿기 새문이다. 勿論 여기서 唯物論者는 다시 辯明하기를 所謂 精神 즉 觀念과 感覺 갖튼 것은 一種 物質의 變態狀에 不過하다 하겟지만은 그러나 物質과 觀念 즉 例하면 石과 愛가 性質上 갖다 하는 學說은 曲說이요. 遇인 의 狂言이다. 갖가히 말하면 食物이라는 物質과 食慾이라는 精神的 現狀과는 그 性質 上로서 同一하다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럼으로 唯物論者가 力不減說을 가지고 一般 精神을 否認할냐는 것은 理論도 되지 못하지만은 一步를 進하여 도리혀 自家 破綻을 가져오고 만다.

다섯째 理由인 生命 及 精神의 後進說은 또한 難關에 難關을 더함에 不過 하나니 萬一 이 宇宙에 처음에는 生命도 업고 意識도 업섯다 하면 그것들 즉 精神 現狀들이 엇더케 生起하엿스며, 쏘는 何處에서 來하여슬가 하는 어려운 問題를 만드려 논는다. 이點에 對하여 以後에도 더 說明하려니와 宇宙

가 本來 瓦斯體에서 意識에 이르기까지 繼續的으로 進化하여 왔다하면 그 進化의 科程속에는 盲目的한 物質的 力の 運動보다 意識的, 動的, 活精이 繼續的으로 流露 表現하여 온 것은 事實이고, 이 表現의 形式은 혹은 本能的도 되고 혹은 理性的도 되어 진 것이다. 이것이 合理的한 解釋일 뿐안이라 進化的 事實과 符合된다. 쉽게 말하면 宇宙의 進化는 根本부터 意識的 進化인 것이다. 假使이 宇宙가 畚처음에 火質的 瓦斯의 相態에 잇섯다 하드래도 生命과 그 意識은 적어도 可能性 相態로 그 進化의 原動力 自體로써 嚴存하여 活動하였다 한다. 다시 말하면 이 宇宙萬象은 動的 實存 즉 生命의 外界化에 사 不過하다 한다.

우리는 혼이 意識이나 精神 作用은 人類에 와서 頭腦가 發達된 後에 그 痕迹을 볼 수 잇다고 하나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精神 作用은 頭腦만으로 야만 作用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아미바」갓튼 單細胞 動物은 特別한 消化器가 업스되 消化 作用을 함과 갓티 精神 作用이라는 것도 頭腦가 업시 存在하고, 또한 作用할 수 잇을 것이다. 이럼으로 頭腦와 精神 作用에게는 그리 絶對的 關係를 要치 안는다.

우리는 以上에 唯物論者의 變論點은 單只無味한 一種의 偏見과 獨單의 結果인 것을 아랏스며, 적어도 그 理論點들이 다시 根據있게 될나면 從來의 偏狹을 眚여 버리고 深刻한 研究的 態度를 다시 가지고 努力치 안이하면 안이 되겟다.

우리는 다시 이 아래 唯物論의 最後的 歸結할 運命을 記述하겟다.

四, 唯物論의 最後

美國人 實用主義者 윌리암 쎄임슨 [제임스] 는 일즉이 이러케 말했다. 비록 唯物主義나 唯心主義 나의 理論의 根據가 各各 同一히 合理하고 有力하다 하드래도 兩者의 最後 結果를 보아서는 唯物論은 唯心論보다 莫大한 利害的 損害點, 그러니까 弱點이 만타 하엿다. 勿論 如此한 實用主義의 立地에서 모든 學術的 論爭의 담관을 利害라는 標目を 세우고 判決言渡하려는 것은 넘우나眞理의 價値를 虛落하는 嫌이 업지 안치만은 그러나 우리는 唯物論과 우리의 實際的 生活과의 關係를 잠간 議論하여 봄이 虛勞는 안일듯하다.

우리가 唯物論의 主張처럼 이 世上萬事物 어느 것이든지 物質의 近地에서 生起하엿고 그 歸結도 다 物質에 잇다 하고 그 結局을 生覺하여 보자. 또는 이 世上에 精神 方面에 對한 모든 小說, 歷史, 宗教, 哲學, 藝術, 社交, 同情,

慈善, 道德 갖은 것을 온통 사람 生活에서 썰어 버린다하고 생각하여보자. 그러타 하고 누구나 우리의 人生生活을 본다 하면 그 얼마나 가난하게 보여 질는지 可히 測則할 수 있겠다. 세상에 잇는 商業에 對한 書籍만이라도 남겨 두고는 그 外 精神에 對한 書類를 除去한다 하면 몇 卷의 冊이나 남겨 잇섬 즉한가? 精神 方面을 만히 爲主하는 人類歷史에 對한 冊子도 滅하고 美를 目的한 藝術도 眞理를 구하는 哲學도 善을 命하는 道德도 모다 업다 하면 거기에는 眞善美 업는 生活이 될 쐰아니라 彼此 理解 쏘차 업서 저서 來從 에는 주먹싸움, 칼싸움에 全滅하고 말 것이다. 이럼으로 精神의 存在와 偉力을 否認하고 싸라서 그 價値를 沒却하는 學說이나 主張은 人類社會를 一種 無味한 禽獸社會로 變移시키려 하는 것이니 이 點에 잇서 보다 向上 될 生活을 憧憬하는 이는 함부로 춤추고 짓그리는 것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自己의 理論의 結末을 生覺할 必要가 있다. 한다.

純唯物論者에 依하면 이 世上은 漸次 滅亡에로 向한다 한다. 卽 이 宇宙의 全熱과 力은 漸漸 凉却하여 消滅하며 잇다 한다. 하기 썰문에 우리는 太陽 갖은 것도 몇 萬年이 가지 못하고 다 식여져서 마침내 氷塊로 變化하는 冬時에 現在한 生命과 그 他는 다 死滅하여 업서지고 말리라 한다. 이러한 學說은 將來의 未知事를 冊机 것헤안자 獨單으로 預則하는 것에 不過한 것이 더 말 할 根據도 업다. 實로 이 世上 사람은 엇재든 늘 사라보겏다고 他人과 競爭도 繼續하여 나아가며 同時에 남을 信任도 하고, 同情도 하고 사랑도 베프는 것이다. 唯物論的 科學者의 말이 如何타 하든지 그것을 밋고 이 宇宙는 얼마 後에 凉却하고 滅한다 해야 落心하고 悲觀치 안이 한다. 實로 말이지 그들은 公正한 것과 善美한 것을 爲아야 줄곳 싸와 나아가며 언제든 지 眞과 善을 僞와 惡을 익이고야 말리라는 信念이 강한 것이다. 이럼으로 그들은 비록 現下에 잇서서는 設或 不公正과 邪惡한데 억매여 呻吟하는데 處했다 하드래도 將來에는 그 不公正과 虛僞가 깨지고 公正과 眞이 勝利할 것을 밋고 天然自若하고 念鬪하여 나아간다. 그들은 여기에 잇서 樂觀하고 將來主義를 가지고 잇다. 念鬪者들은 唯物論보다 唯心論을 眞理라고 밋고 그 方面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實로 心의 願에서 우러 나오는 必然이다.

大概 以上の 眞과 善의 勝利를 밋는 唯心論者와 正反對로 唯物論者들은 그들의 理論의 根據가 宇宙의 破滅的 終末에 두잇음과 갖티 宇宙觀, 人生觀 할 것 업시 다 想觀 上에 樹立케 되는 것이다. 이럼으로 將來의 勝利를 보고 忿鬪하기를 願치 안이 하는 者는 거의 唯物的 傾向을 取하는 것이다.(이는 우리 朝鮮 內地에서 흔히 볼 수 잇는 事實이다) 이 宇宙가 將次 消滅하고 말

것이니 一槐의 物質 作用에서 不過하는 微微한 人生의 力으로써 그 自然的 沒落을 干涉도 할 餘有도 업스니 그냥 自然의 運命에 依하여 사는 새까지 살다 말자하는 세움이다. 사람의 우렁찬 忿鬪力으로써 이 宇宙의 進行을 能히 支配하고 應用할 수 있는 現下 應用科學的 事實을 밋을 餘力도 업다. 萬一 그러한 人爲的 征服 能力을 밋는다 하면 唯物論의 根本的, 本的, 立地를 亦亦裸裸히 否認하는 것 맞게 더 안된다. 하기 새문에 唯物論者는 적어도 그들의 學術의 必然的 結果에 依하여 이 宇宙와 人類社會를 革新하겠다는 精神도 薄하겠지만은 恒常 正道와 光明을 밋고 前進하는 唯心主義的 忿鬪者와는 아모關係도 업다 할 것이다.

勿論 世上에는 唯物을 主張한다고 다 悲觀하고 忿鬪를 안이하며 쏘는 唯心を 밋는다고 다 樂觀하고 忿鬪하는 것은 안이다. 우리는 그와 反對로 唯物論者이면서도 제법 樂觀하고 善과 眞의 勝利를 밋고 相當히 努力하는 이를 볼 수 잇스며, 또한 唯心論者로써 迷信에 걸리어 事業에 臨하여 回避奸計를 圖謀하는 이를 求景한다. 이러케 唯物論者가 自己의 學說대로 悲觀落膽한다든지 그러치 안이한 다든지 쏘는 唯心論者가 自己의 學說대로 밋고 혹은 그 反對로 行動하는 이 모든 複雜한 事實에 對한 眞理는 世上의 무엇보다 사람은 根本的으로 自己의 學說에 依하여 生活을 하는 것이 안이라 도리혀 自己의 生活이 모든 學說을 產出하고 支配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動的性質인 生命은 모든 學說을 提唱도 하지만은 그것을 超越도 한다하는 말이다. 이럼으로 살자는 動的忿鬪에 잇서서는 唯物論이니, 唯心論이니 하는 學說들은 別로 有力하지도 못하다. 오즉 動的 活動만이 儼存하여 萬事를 支配하고 잇슬뿐이다.

이와 갓티 道德이란 것도 唯物論者의 主張대로 아모런 根據가 업다하여 함부로 動搖될 것도 안이다. 唯物論者에 依하면 道德은 엇던 專制者(神僧侶 君主)의 억제의 命令에서 지나지 안이한 바 그 專制者들의 沒落에 從하여 道德도 沒滅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道德은 아모런 存在的 價値도 업다하여 그것을 反對하고 抗議하는 것이다. 이러한 反對와 抗議은 唯物論者들은 一種 큰 자랑거리 갓티 生覺하고 意氣揚揚하게 우쭐대지만은 이는 道德이란 것이 무엇인지 根本부터 아지도 못하는 沒覺者의 妄動인 것을 알 수 잇다. 道德律이 世上 人의 手中에 드러가서 그것이 혼이 神秘化 혹은 迷信化 하게 되는 境遇를 우리가 遺憾으로 看做하지만은 그러나 原道德律은 客觀的으로 存在한 自然律이라고는 우리는 主張한다. 身體를 健全케 할나하면 衛生律을 직혀야 하는 것과 갓티 幸福스러운 生活을 맞볼나면 道德律 즉 거죽말 하지마라 부주런히 忿鬪하라 하는 것을 實際로 직혀야한다 함이다. 모든 社會生活 其

他 人人間에 去來되는 事業에 거죽말 잇고 속임이 잇고 口取가 잇다 하면 絶對로 그 生活을 維持할 수 업는 것이다. 道德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안이라 公正과 眞正으로써야만 人類生活을 亨福스럽게 만들 수 잇다 하는 生活自體의 命令이 곳 道德的 律이다. 함으로 道德 업시는 아모런 生活도 할 수 업는 것이다.

우리는 以上の 몇 가지 理由로 해서 唯物論은 그 學的理論에만 無根의 主張일 썬안이라 實際生活과의 關係를 보아서도 唯物論은 아모런 價値도 업는 無味한 偏見에서 不過하다 한다.

五. 最後의 判決

以上에 여러項에 실린 論意에 의하여 凡 唯物論의 勢力如何와 記者의 立地를 의미 斟酌하였거지만은 在來에 잇서서 唯心論이라하는데는 그 論法이 하나만도 안이오. 여러 種類가 잇는 바, 記者가 確實無疑라고 밋는 唯心論을 本節에서 簡單히 提起하고저 한다. 우리는 먼저 唯心이란 名辭부터 分明히 解釋할 必要가 잇다. 그런데 心이란 무슨뜻인가? 우리는 이 心을 西洋人 哲學語의 뜻에 依하여 說明하여 보자.

英語로 唯心論이란 말은 Idealism이니 直譯하면 觀念論 혹은 理想論이다. 즉 觀念이 萬有의 根本으로 보는 것이 觀念論이니 史的으로는 古代 플라톤과 現代 헤겔哲學에서 分明히 볼 수 잇는 學術이다. 그러나 이 觀念論의 觀念을 獨語로는 Geist 혹은 Begriff 혹은 Idee 라고도 하나니 直譯하면 까이스트 [가이스트] 는 精神, 썬그리프 [베그리프] 는 概念이, 데이는 觀念이라고 함이 分明하겠는 바 헤겔哲學에 잇서서는 Geist, Begriff, Idee를 다 同一한 뜻으로 使用하여슴으로 別로分別할 길이 업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唯心論의 唯心을 Geist, Begriff, Idee 로 解釋하는 것 보다 英語의 心, 즉 mind를 廣義로 쓰는 것이 滿히 우리의 唯心이라는 뜻을 表命 하엿다 하겠다. 함으로 우리의 唯心은 以上の 여러 名辭들 보다 더 包括的인 意識的 活動, 혹은 動的 意志다. 한다

生命의 活動은 必要的으로 目的的이오. 意識的이다. 웨그런 故하면 活動이라는 것은 엿더한 方向을 預想하고 나아가는 進行인 바 다시 말하면 모든 進行은 엿더한 目的을 預想하는 것이 됨으로 우리는 그 目的이 意識을 預想 하엿다 한다. 즉 盲目的한 行動에는 勿論 目的은 업고 싸라서 目的 업는데는 意識이 업는 것이다. 이럼으로 참 活動이라는 것은 盲目的 躍動이 안이오. 意識的 計劃的인 것이다. 이래서 生命活動과 意識은 同存한다. 즉 意識이 生命活動이오. 生命活動이 意識이다.

이러한 動的 活力이 進化하는 中에 外界化 즉 客觀世界가 出現한다. 다시 말하면 生命意志의 活動 그것이 外面化하는 作用이다. 外面化는 復數化이다. 이 復數化가 宇宙萬象의 存在의 原因이다. 物質世界의 千態萬相은 다 根本的 生命意識의 表現 즉 外面化이다.

다시 生命의 이 復數化 즉 客觀化는 內在的 生命 自體의 珍貨의 缺課라고도 할 수 있다. 生命은 全 過去歷史 즉 經驗을 짓고 現實에 왔스며 압흐로 나아가며 있다. 雪塊가 굴너 가면서 작고 增大하드시 生命은 나아가두 그 精神的 生活의 內容이 작고, 작고 부러지난 것이다. 이와 갖티 持續하며 있다.

엇더케 生覺하면 過去의 歷史는 現在에 潛在하였고, 그것이 持續的으로 나아가는 以上 實在는 오즉하나 쏘이니, 그것은 곳 現在 쏘이라는 것이다. 즉 生命의 活動은 現在的 意味持續的 意味가 있는 ㅅㅅㅅ이다. 이럼으로 우리 의 過去가 現實에서 살아 있고 또한 그것이 將來로 延長하며 있는 것인즉 이 意味에 잇서 우리는 죽지 안코 現在에서 永存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簡單하나마 現代 우리가 본 新唯心論의 骨子라 할 것이다.

大體 唯物主義는 以上과 갖티 本體論的 立脚地에서 論하지 안코 單只 認識에 限하여서만 論學할 지라도 物質이라는 것은 아모리한 近地가 업는 心的 창조物에게 不過한 것을 알 수 잇는 것이다. 所謂 物質이라는 것은 普通人에 依하여 우리 의 目前에 列置한 再机이며, 冊子며, 金, 木, 水, 火, 土 等 이라하겟지만은 그러나 이 箇箇物體들인 冊子나 書机는 그대로 永存하여 잇 지 안코 無常變化하여 來從에는 冊子이라는 形貌와 書机라는 形式을 이리버 리게 됨을 우리는 안다. 그런즉 그 特殊的 冊子로써의 存在, 一個 特殊的 書 机로써의 存在는 업서 ㅅㅅ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唯物論者는 主張하되 비록 그 一個의 冊子는 變化하여 前貌樸을 이리버렸지만은 그 「冊子의 物 質」 즉 그 構成原料는 그대로 存在한다 하나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아모런 貌樣도 形式도 업는 物質, 즉 눈에도 ㅅㅅ이지 안코 內음세도 업고 귀에도 ㅅ 기지 안을 ㅅㅅ안이라 그것이 무엇인지 形言하여 그것의 소리도 ㅅㅅ을 수 업는 無形的, 死的, 怪物은 모든 變通을 抗拒하면서도 혼자 嚴存한다 하는 세음이 다. 그런즉 이 唯物論者의 如此한 物質은 우리 의 五官으로 感覺할 수도 업는 無性無形한 것이기 ㅅㅅㅅ에 唯物論者 「스펜서」 갖튼 이는 그것을 「不可知」 라고 斷言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것을 가라쳐 唯物論的 科學의 抽象的 物質 즉 獨楗이觀이라고 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러한 物質은 적어도 우리 의 概念 에서 ㅅㅅ여난 一種 幻像物에서 지나지 안이한다. 이것만 準하드래도 物質은 비록 無形無味한 것이로되 思考 作用을 ㅅㅅ나서는 혼자 잇지 못하며 그러니 ㅅㅅ 思考作用에게 恒當 拘束되여 잇는 것이 事實이다.

「소펜하우어」는 이러케 말했다. 主觀이 업는 客觀이 업고 客觀이 업는 主觀이 업다. 그런데 客觀, 즉 世界는 主觀, 즉 意志의 觀念이다」라고.(Die Welt als Wille und Vestellung)

六, 結 論

唯物이나 唯心이나? 하는 討議는 이만하고 結論하겟다. 時間이 만흐면 더 細密히 論하고 십지만은 그것은 現下 나의 日常生活이 不許한다. 單只 以上 및 節에 分하여 陳述한 것을 綜合하자면 唯物論은 그 學術的 根據를 檢討하든지 쪼는 實際的 結果를 論及하든지 上下를 通하여 可히 미들만한 論法도 되지 못하는 것을 指摘하여스며 結米에는 記者가 생각하기를 올타고 밋는 唯心論을 간단히 그 輪郭그려고 노코만 말았다. 唯心論者도 自己의 立地를 더 研究하여 튼튼히 하여들 必要가 잇겟지만은 우리 動的 唯心論者들은 忿鬪를 實存의 骨子로안 以上에 더 忿鬪해 나아갈 것은 疑心이 업겟다. 즉 忿鬪가 우리生活의 實在다 甞까지 싸와 나아가라 이것이 眞이요, 善이요, 美인 것을 우리는 確信하는 것이다. 一九二七十七